석유화학, 에너지 절감 앞장서라!

3월 LNG 재고 1일분 불과 … 에너지 다소비산업 · 정부 함께 노력해야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유 재고량이 4일 사용분에 불과해 발등에 이미 불이 떨어진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한여름 소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부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석유 · LNG · 전력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3월말 LNG 재고량이 7만톤에 불과해 하루 사용량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체결한 계약물량만 예정대로 수입한다면 1-3월 국내 LNG 도입분은 수요에 비해 월평균 10만6000톤 가량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 현물시장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으나 현물시장에서 공급물량이 크게 달리고 있어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다. 1-2월 강추위가 며칠 지속되면 자칫 LNG 수급에 구멍이 뚫릴 염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라크 전쟁이 일어나 중장기전에 들어간다면 석유 수급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가격 또한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계는 물론 가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과 이에 따른 수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노력이 필수적이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영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대부분 최고경영자(CEO)들은 원가절감을 얘기하면서도 기름이 많이 드는 보일러 교체에는 관심이 없다. 기업 에너지 절감운동은 고작 전등 한 개 끄기나 내 컴퓨터 끄기 등 직원들에 대한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을 비켜나 있고 덩치 큰 원가절감 노력은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 에너지는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은 일반 주택용에 비해 떨어진다.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3개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에너지 소비비중은 전체 제조업 소비량의 75% 이상이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에너지는 많이 쓰면서도 에너지 관련 설비 노후화를 방치하고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2001년 162곳에 달했으나 2002년 130곳으로 줄어든데 이어 2003년 96곳에 그치고 있다. 요로를 포함한 노후 보일러는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의 67%를 차지하지만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가까운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당장 에너지 효율설비를 들여오는데 드는 돈을 생각해 펌프와 동력 설비, 폐열처리 등의 에너지 효율에는 관심도 없다. 513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은 신청기업이 줄어 오히려 2002년보다 감소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2/07>